불교서 녹색 미래 찾는 '환경보살'



테마人 유정길(59)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부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의 문제가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법의 실천이 전체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수없이 많다. 출가하여 사문의 길을 걷는 길부터 여러 분야에서 불법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까지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부터 인류 전체를 들여다보는 일까지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불법(佛法) 실천의 수많은 길 중에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길은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일까. 그 어디쯤에서 길을 시작하고, 지금도 그 어디쯤에서 부처님 말씀을 찾아가는 이가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회단체를 만들고 여법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것에 삶을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을 '생명살림'이라고 말하는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부처님 말씀의 그 어디쯤에서 서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의 유정길 운영위원장이다.

불교환경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3년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 과천과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 과천을 지나 서울에 들어선 두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였다. 두 사람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57일 동안 도반들과 함께 삼보일배로 부안서 서울까지 왔다. 한국환경운동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 드라마의 중심엔 한국불교가 있었고 한국불교를 대신하는 이름은 불교환경연대였다.

불교계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승인 등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인 마구잡이 지역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지자체 출범 이후 2000년대에 걸쳐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 불교계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속리산 문장대 용화지구 온천개발, 홍제암 계곡 유원지화, 문경 봉암사 주변 온천개발, 백담사 입구 종합휴양지 조성 등 불교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대형 국책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됐고,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간척사업이었다. 군산과 부안을 잇는 34km의 방조제로 갯벌을 메워 4만 2천ha 규모의 간척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던 어민들의 터전과 수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은 57일간의 삼보일배로 자연환경을 배제한 개발일변도의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이때의 '삼보일배'는 다른 환경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시위였다. 밖으로의 외침이 아닌 안으로의 참회였다. 사업 당사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 공업중생으로서의 깊은 참회의 발현이었다. 환경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환경운동, 불교환경연대 출범

불교계 환경운동의 중심인 불교환경연대의 시작에는 유정길 운영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수경 스님 등과 함께 2000년 6월 출범한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에서 지리산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 지리산 댐은 무산됐다. 지리산 댐 건설을 저지한 범불교연대 회원들은 그 동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환경운동 단체가 탄생한다.

유정길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01년 9월 수경 스님을 초대 상임대표로 한 불교환경연대가 문을 연다.

불교환경연대는 이후 한국환경운동사와 함께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운동,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백지화 운동,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부안 해창 갯벌~서울 광화문), 천성산 살리기 운동, 지율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한 종교인 참회기도 추진활동, 발우공양의 생활화, 빈그릇 운동, 종교인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 숲해설가 양성,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등 이 땅의 올바른 환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2016년까지 불교환경연대의 역사에 유정길 위원장의 이름은 없다. 그는 창립 당시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불교와 만나다

수배 학생시절 법륜 스님 만나
해인사 수련대회서 불교 입문
불교교재 편집 도우며 본격 공부

불교와 만나다 법륜을 만나다

1985년 유정길은 수배자였다. '운동권' 학생이었다. 유 위원장은 서울 봉천동 서울대 근처 소림선원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법륜 스님이 있었다. 그리고 유 위원장과 같은 운동권 학생 20여 명이 몸을 숨기고 있었다. 유 위원장은 불교의 '불' 자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법륜 스님도 지금의 법륜 스님은 아니었다. 불교의 '불' 자도 모르는 유 위원장은 하루에 4번 씩 기도와 능엄주 독경을 해야 했다.

"하루에 2천배는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 유 위원장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영남불교학생회 수련대회에 함께 하게 된다. 실무팀으로부터 지도교사를 위임받은 유 위원장은 중고등학생 700여 명과 함께 수련대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불교를 만난다. 법륜 스님의 '부처님의 일생',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비롯해 삼천배, 새벽예불, 성철 스님 등 새로운 세상과 만난다.

"그때 성철 스님도 가까이서 뵐 수 있었고, 법륜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통해서 불교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유 위원장의 행보에서 법륜 스님은 큰 인연이었다. 그 인연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다. 수련대회에서 돌아온 유 위원장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마침내 구속되어 1년 동안 옥고를 치른다.

B2면에 계속

유정길 위원장은… 1986년 수행공동체 정토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불교수행과 사회운동을 해왔다. 에코붓다의 이사로 '생태사상과 교육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제로-빈그릇운동' 등 대안적 환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공양주로 있다가 9.11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칸다하르, 바미안 등에서 4년간 긴급구호와 개발협력활동을 했다. 돌아와 6년여 평화재단의 기획실장으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운동을 펼쳐왔다.평화재단 기획실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국귀농운동본부 부본부장 아프가니스탄 주재 JTS 카불지원 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소장, 한살림 마음살림위원회 연수위원,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정토회 에코붓다 이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운영위원,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2016년부터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0〉

B5 문화
임석환 불화장 괘불전

B6 학술
동국대 인문硏 추계 학술대회